메리츠 금융 Daily

은행/지주 Analyst 은경완
02. 6454-4870
kw.eun@meritz.co.kr

meritz 메리츠증권

2022년 3월 7일 (월)

News

은행 대규모 손실 대비 '거액 익스포저 규제' 재연장 — 데일리안

금융위원회,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하는 한도 관리 기준을 내년 3월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행정 지도 예고
특정 기업에 대출 등을 몰아줬다가 부도나서 은행의 대규모 손실로 연결 막기 위한 국제 건전성 기준에 따른 것… 보증기관 보증액과 국책은행의 정부 현물출자 취득 주식 제외

가계대출 감소세…다시 문턱 낮추는 은행들 — 한국경제

국민은행, 이달 주담대 금리를 0.1~0.1%p 낮추기로…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액… 가계대출 감소세로 각 은행의 대출 영업 정상화 분위기
금리 상승과 규제 강화,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올 들어 대출 수요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 국민은행 측은 "대출 수요가 다시 몰릴 수 있어 한시적 적용 계획"

'금융 밖' 노리는 금융사들, 타업종 겸영·자회사 소유 길 열리나 — 조선비즈

금융위원회, 지난달부터 금융업법 개정 TF 가동… 최근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은행의 겸영 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 규제 개선하겠다"는 언급에 시장 기대감 상승
은행의 혁신 서비스 제공과 빅테크에 대한 위기의식이 바탕… 최근 주요 금융그룹들은 핀테크 업종을 넘어 AI, 모빌리티, 헬스케어, ESG로 투자 확대 중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자사주 5000주 매입 — e대한경제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 지난 4일 기준 5,000주 장내 매입해 총 10만 8,127주 보유… 경영성과에 대한 자신감과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현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요인으로 조정 받는 상황… 사측은 올해는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자들과 소통할 것 언급

가입자 돈만 줄줄…저금리라며 올린 보험료, 금리 뛰어도 안 내리네 — 한국경제

저금리 기조에 생보사들이 올린 보장성 보험료가 시장금리 상승 국면에선 내려가지 않아 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 전가한다는 비판 잇단 제기
3대 대형 생보사 삼성, 한화, 교보생명 기준 공시이율 2.0~2.2%... 업계는 예정이율 조정 계획이 없다는 공통 입장 밝혀… 올 하반기부터 보장성보험 예정이율 조정 가능성 제기

손보사 '배타적사용권' 경쟁 본격화…"마케팅 활용도 높다" — 아이뉴스24

손보사들, 올해 들어 배타적 사용권 획득 경쟁… KB손보, 정신질환치료비Ⅲ에 3개월 간 배타적 사용권 획득
고객 선점을 위한 목적으로 풀이… 신상품 개발 역량 가진 회사인 점 강조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하고 독점기간 동안 고객 선점 가능…다만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존재

'3대 악재' 겹친 국내 증시, 거래대금 '뚝'…증권사 1분기 실적 '빨간불' — 아시아경제

미국 연준의 긴축 우려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투자 심리 크게 위축되며 증시 거래대금 급감… 지난달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 18조 7,000억원
증권사들의 올 1분기 부진한 실적 예상… 한국금융지주,NH, 삼성, 미래에셋, 키움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합계 약 1조 5,202억원으로 집계… 전년동기대비 24.9% 감소 수준

금투업계, ETF·ETN '내가 먼저' 치열 — 한국금융신문

금투업계, ETP 선점 효과에 주력 중… 잠김효과(Lock-in effect) 있는 만큼, 대형사는 시장점유율 사수 및 후발주자는 최초 타이틀 획득에 열 올리는 모습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이 화두…투자자 입장에서 ETF나 ETN이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고 서로 대체재로 인식되어 다양한 최초 ETN 공략 중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